“군민 제안이 변화 혁신의 동력”

권익현 부안군수 “공감의 날 행사서 251건 의견 모아져”

권익현 부안군수가 현장에서 건네는 군민들의 제안이 부안의 미래를 바꿀 변화와 혁신의 동력임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넘어 체감행정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4일 열린 3월 중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지난달 ‘군민과 함께 성장!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군민과의 열린 소통 대화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군정발전을 위한 251건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건네주시는 군민들의 제안이 부안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라며 “민생의 현장에서 듣게 된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인 만큼 건의사항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행정을 넘어 이제는 체감행정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4일 열린 3월 중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군민과의 열린 소통 대화를 실시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제11회 부안마실축제가 해뜰마루 지방정원 일원에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며 “새로운 장소에서 열리는 첫해인 만큼 이번 축제가 해뜰마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부안의 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제 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예산 요구가 없으면 예산 반영도 없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해 예산 확보에 선제적·전략적 대응계획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기회는 위기 속에서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오직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총 250대 추가 설치… 독거노인·장애인 전체 1298가구 혜택

고창군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 총 250대를 추가 설치해 전체 1298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취약노인 가정에 설치한다. 화재?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신고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간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3차사업부터는 고령의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등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찾아낼 계획이다.

지난해 고창군에선 화재감지 47건, 응급호출 33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해 내기도 했다. 119 긴급출동과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후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와보지 못하는 자녀들의 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민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취약가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가구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생활안전망 확보 및 고독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내어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각종 사업 사후 관리·운영 대책 마련 철저”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정읍시는 4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각종 사업 마무리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준공 전 운영관리 대책을 완벽히 마련해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홍보 강화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각종 농업 보조 사업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보조금이나 영농자재 공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한 축인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정 추진의 동반자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시정 운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설명회 개최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등

고창군이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소개, 2023년도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각 부서별 협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고창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군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등 군민 권익보호 제도 안내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시책 발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근절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이었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고창군이 4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군민이 느끼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는 물론 청렴 컨설팅과 우수사례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은 2024년 핵심 슬로건인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에 걸맞는 청렴수준 도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기센터,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 실시

정읍시가 농작업 재해 안전 예방 교육을 추진해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간다.

시는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오는 28일까지 15개 읍·면 사무소에서 안전실천 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농업 시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해 주는 보호구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 개인별 잘못된 자세 교정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 강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육 수료증을 농협에 제출하면 안전재해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5%, 농기계종합보험은 3%(최대 3만원) 할인 적용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농업 기계화가 이뤄지지 않은 농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삶의 질이 낮은 편”이라며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과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농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면사무소와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539-6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 소식통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업체 모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만의 특색을 담은 경쟁력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은 오는 13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이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며 모집 분야는 지역특산품과 군의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 서비스 등으로 따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기존과 차별화된 더욱 다양한 상품의 접수가 예상된다.

군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서류검증과 현장실사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농촌 광대역망 구축

정읍시가 농촌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50가구 미만 농촌 지역 22개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은 IPTV, 영상전화, 인터넷 교육, 온라인쇼핑 등 빠르고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은 소규모 농촌마을의 인터넷 가입자 수 부족으로 수익성이 낮아 통신사들이 기반 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었으나, 시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소규모 마을까지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소규모 농촌지역에도 광대역망을 구축해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편의성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417개 마을에 구축을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